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조미옥<sup>1</sup>, 백경화<sup>2\*</sup>

<sup>1</sup>해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i-Ock Cho<sup>1</sup>, Kyoung-Hwa Baek<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Nursing, Hyejeo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일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12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T검정,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임상수행능력은 양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1.9%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교육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ir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123 seniors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22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t-test, ANOVA and regression using the SPSS 22.0 program.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competency were found to have a quantitative correlation, and it was analyzed that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linical competency. Major satisfaction appeared to be the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clinical competency,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51.9%.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t is suggested to develop a nursing curriculum that can increase the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Competence

---

\*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wa Baek(khbignite@gch.ac.kr)

Received February 13, 2023

Revised March 6, 2023

Accepted March 20, 2023

Published March 28,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간호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의 평가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기술 등을 임상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의 임상현장에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2] 반면, 임상수행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나아가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의 부적응과 이직을 초래하게 된다[3].

간호사는 긍정적인 의료 결과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며 가장 큰 전문 그룹 중 하나이다[4]. 의료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관념, 신념 등 간호에 대해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활동 과정이나 간호사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를 간호전문직관이라 한다[5].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이 낮은 경우에도 간호사는 임상수행능력이 감소하고 직업만족도가 낮아지며, 이직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6-7].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관이나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8], 역으로 간호전문직관의 확고한 정립은 간호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9]. 간호전문직관은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있기에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10],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간호 정체성을 고취하는 특성이 있기에 간호대학생의 가치관 정립 및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11].

전공만족도는 학과의 적응능력 향상과 함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게 하므로 간호전문직관과 상호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12]. 전공에 대한 만족은 개인이 선택한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 시 현재 자신의 전공학과를 평가 및 판단하는 과정의 산물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13]. 또한,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과의 유의한 관계가 있다[14].

지금까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메타인지, 문제해결과정,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셀프리더십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3,5,8,9,11-20]. 그러나 이들 연구 중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임상수행능력 간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임상수행능력 간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임상수행능력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C도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에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의 산정은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였다. 선행되어진 연구를 바탕으로[14] 효과크기 .599 (설명력 59.9%),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수 7 개일 때 다중회귀분석 시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26명으로 산출되었으나, 참여에 동의한 학생 125명에게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중 기재하지 않았거나 응답 및 내용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23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전공만족도

Illinois 대학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평가 조사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김계현 등[21]이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학과 만족' 34개 문항 중 이동재 [22]가 간호학전공만족 관련 문항으로 선택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 [22]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이었다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03이었다.

### 2.3.2 간호전문직관

윤은자 등[5]이 개발하고 김명희 등[9]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사회적 인식 5문항,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김명희[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49이었다.

### 2.3.3 임상수행능력

Schwirian의 The 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 기반으로 이원희 등[23]이 개발한 임상 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최미숙[2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간호기술 관련 11문항, 간호과정 관련 11문항, 교육·협력관계 관련 8문항, 전문직 발전 관련 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잘 못 한다' 1점에서 '매우 잘 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미숙[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44이었다.

##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희망 및 동의한 학생에게 온라인 플랫폼

을 활용한 설문지의 링크를 공유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준수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참여에 거부할 수 있음과 설문 응답 중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여기에 관련된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04일에서 12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사후분석은 Tukey방법과 Dunnett의 T3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간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86.2%로 많았으며, 연령은 20-25세가 90.2%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 71.5%, 기독교 13.8%, 가톨릭 8.1%, 불교 5.7%,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졸업 후 취직이 잘됨으로' 52.8%,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22.8%, '가족의 권유로' 16.3%, '기타' 4.1%, '입시성적에 맞추어서' 2.4%,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임으로'가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답변으로는 '친구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제비뽑기가 있었다. 가족 중 간호사 유무로서는 '없다' 71.5%, '있다'가 28.5%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of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ajor Satisfaction (M±SD)	t/F (p)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 (p)	Clinical Competence (M±SD)	t/F (p)
Gender	Male	17	13.8	3.63±.70	.056 (.956)	3.29±.44	-.605 (.546)	3.63±.58	.268 (.792)
	Female	106	86.2	3.64±.47		3.35±.32		3.59±.43	
Age(year)	20-25	111	90.2	3.62±.51	-.952 (.343)	3.33±.33	-1.030 (.305)	3.58±.44	-1.759 (.081)
	26-30	12	9.8	3.77±.48		3.44±.42		3.81±.48	
Religion	Christian	17	13.8	3.60±.61	3.188 (.016)	3.42±.39	.543 (.705)	3.56±.62	1.417 (.233)
	Catholic	10	8.1	3.87±.50		3.37±.41		3.63±.42	
	Buddhism	7	5.7	3.87±.33		3.30±.41		3.75±.24	
	No	88	71.5	3.58±.47		3.32±.31		3.58±.43	
	other	1	.8	5.00±0.0		3.61±0.0		4.56±0.0	
Application motivation	Matching aptitude and interest	28	22.8	3.92±.41 <sup>a</sup>	4.124 (.002) a/b, a/c	3.47±.32	1.195 (.316)	3.76±.41	1.614 (.162)
	according to grades	3	2.4	4.13±.16		3.37±.46		3.82±.04	
	family invitation	20	16.3	3.48±.52 <sup>b</sup>		3.32±.36		3.58±.35	
	Because the job	65	52.8	3.53±.48 <sup>c</sup>		3.30±.32		3.51±.48	
	job to serve	2	1.6	4.14±.22		3.28±.47		3.96±.85	
other	5	4.1	3.60±.41	3.25±.34	3.66±.41				
There is a nurse in the family	Yes	88	71.5	3.64±.49	.036 (.971)	3.32±.34	-1.013 (.313)	3.63±.46	1.059 (.292)
	No	35	28.5	3.63±.56		3.39±.33		3.53±.42	

**3.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4±.51점, 3.34±.34점, 3.60±.5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Competence (N=123)**

Variables (Range)	M±SD	Min-Max
Major Satisfaction	3.64±.51	2.78-5.00
Nursing Professionalism	3.34±.34	2.56-4.06
Clinical Competence	3.60±.51	2.24-4.6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종교(t=3.188, p=.016)와 진학동기(t=4.124,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을 한 결과 진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집단이 “가족의 권유로” 집단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집단이 “졸업 후 취직이 잘되므로” 집단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그룹 중 케이스가 최소 2개 미만인 집단이 있어 사후검정이 수행되지 않았다.

**3.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r=.70, p<.001), 간호전문직관(r=.5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9, p<.001)(Table 3).

**Table 3. Correlation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Competence (N=123)**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Competence
	r(p)	r(p)	r(p)
Major Satisfaction	1		
Nursing Professionalism	.49(<.001)	1	
Clinical Competence	.70(<.001)	.51(<.001)	1

Table 4.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Competence (N=123)

Variables	B	SE	$\beta$	t	Adj R <sup>2</sup>	F
Constant	.700	.293		2.392		
Major Satisfaction	.528	.064	.593	8.211	.519	86.811
Nursing Professionalism	.293	.097	.218	3.019		

### 3.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98로 검정통계량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변수 모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86.811, p=.00$ ), 모형의 설명력은 51.9%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0.593)로 나타났다(Table 4).

## 4. 논의

2022년 대한민국 간호현장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 이직률은 15.2%,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에 비해 3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저연차의 절반 이상이 퇴직하는 간호현장, 단순 신규 인력 공급 정책을 넘어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교육면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간호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부심을 느끼면서 임상현장을 떠나지 않고, 간호의 발전과 건강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요구 및 고려할 요인들을 탐색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8].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임상수행능력 간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임상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간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3.64점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Kwon 등[9] 연구결과인 3.0

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에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Jang 등[14] 연구결과 3.88점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소명의식,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 등[26] 연구결과 3.92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마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므로 학생들이 기대한 전공강의 수준이 충족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진학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집단이 “가족의 권유로”, “졸업 후 취직이 잘되므로” 집단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전공에 맞지 않더라도 학과적응 및 진로목표설정 관련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준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34점으로 Lee 등[26] 연구결과 3.56점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을 연구한 Park[27] 연구결과 3.48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Jung 등[25] 연구결과 3.82점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을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하며, 졸업 후 실무의 경력을 통하여 발달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간호전문직관을 학생이 갖고 있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졸업 후 학생이 전문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준보다 높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60점으로 Ji 등[28] 연구결과 3.75점, Dong 등[29] 연구결과 3.5점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Jang 등[14] 연구결과 4.0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중회귀분석으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1.9%로 나타났다. 이 중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Jang 등[14]의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Lee[30]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Lee 등[26]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Sim 등[31]은 간호대학생에게 시뮬레이터 기반 분만교육을 시행한 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를 살펴보면,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이 요인들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51.9% 설명할 수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였다. 이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더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임상수행능력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요인 둘 다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에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과적응 및 진로목표설정 관련 프로그램 또는 간호전문직관 관련 프로그램 적용 전·후 임상수행능력의 변화를 파악하는 실험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공만족

도와 간호전문직관, 특히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R. L. Watson., A. Stimpson., A. Topping & D. Porock. (2003).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in nursing: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9(5), 421-431. DOI : 10.1046/j.1365-2648.2002.02307.x
- [2] B. Campbell & G. Mackay. (2001). Continuing competence: An Ontario nursing regulatory program that supports nurses and employers.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25(2), 22-30. DOI : 10.1097/00006216-200101000-00006
- [3] Y. H. Shin., H. J. Lee & Y. J. Lim. (2010).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1), 37-47. DOI : 10.11111/jkana.2010.16.1.37
- [4] S. Gunasekaran., V. Praveen., K. Maheswari., P. Periasamy., A. Chandrabose & A. Purnasingh. (2022). Fear of COVID-19 among Staff Nurse Working in Tertiary Care Hospital, Erode, Tamil Nadu: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 Diagnostic Research*, 16(6), 1-5.
- [5] E. J. Y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6] M. Wang., H. Guan., L. Yuanzhen., X. Caixia & R. Bei. (2019). Academic burnou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77, 27-31. DOI : 10.1016/j.nedt.2019.03.004
- [7] F. Poorgholami., S. Ramezanli., M. Jahromi & Z. Jahromi. (2016).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angladesh Journal of Medical Science*, 15(1), 57-61. DOI : 10.3329/bjms.v15i1.22118
- [8] H. O. Oh. (2017).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1(2), 31-43.
- [9] M. H. Kim., S. S. Han & E. K. Yoo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10] D. Weis & M. J. Schank. (2000). An instrument to measur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2(2), 201-204.  
DOI : 10.1111/j.1547-5069.2000.00201.x
- [11] H. O. Jeon. (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171-181.  
DOI : 10.5977/jkasne.2016.22.2.171
- [12] Y. M. Kwon & E. J. Yun. (2007).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3(3), 285-292.  
DOI : 10.1
- [13]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4] H. J. Jang. (2020).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7(3), 635-648.  
DOI : 10.12925/jkocs.2020.37.3.635
- [15] E. M. Park & Y. S. Song. (2019).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3), 357-365.  
DOI : 10.5977/jkasne.2019.25.357
- [16] S. E. Jang., S. Y. Kim & N. H. Park. (2019). Factors Influencing Metacogn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4), 448-458.  
DOI : 10.5977/jkasne.2019.25.4.448
- [17] M. H. Park. (2019).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Proces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2), 631-649.  
DOI : 10.22251/jlcci.2019.19.22.631
- [18] K. M. Kim. (2015).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3(1), 73-87.
- [19] K. E. Lee & J. Y. Hong. (2020). Effects of Empathy, Caring efficacy and Stress Coping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4), 1251-1270.
- [20] J. Y. Lee. (2022).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1), 417-425.  
DOI : 10.17703/JCCT.2022.8.1.417
- [21] K. H. Kim.,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22]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3]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 S. M. Lim. (1991).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onsei Nursing*, 13, 17-29.
- [24] M. S. Choi.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5] K. T. Jung et al. (2018).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1), 23-36.
- [26] K. E. Lee & I. S. Seo. (2022).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8(1), 37 - 47  
DOI : 10.5977/jkasne.2022.28.1.37
- [27]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DOI : 10.5977/jkasne.2015.21.2.227
- [28] E. M. Ji. & E. J. Kim. (2021).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9(2), 1526-1534.

[29] H. J. Dong & M. S. Choi. (2016).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4), 373-382.  
DOI : 10.7739/jkafn.2016.23.4.373

[30] L. H. Lee. (2019).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 10(3), 297-306.  
DOI : 10.15207/JKCS.2019.10.3.2

[31] J. S. Sim & S. Y. Park. (2018). Effects of a Simulator-Based Delivery Education on the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5), 199-207.  
DOI : 10.21184/jkeia.2018.7.12.5.199

조 미 옥(Mi-Ock, Cho) [정회원]



- 2004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재활간호, 간호교육
- E-Mail : serena@hj.ac.kr

백 경 화(Kyoung-Hwa, Baek) [정회원]



- 200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5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부정맥환자간호, 심혈관질환자간호, 간호교육
- E-Mail : khbignite@gch.ac.kr